

아라



언니

라떼가 또 올랐어 6,500원 됐어 ㅠㅠ

오후 7:30

주아



헐 또?

아라



○○ 작년에 5,500원이었는데

근데 진짜 물가 왜 안 잡혀?

주아



강사님이 이번 2강에서 그거 다 풀어주심

**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가**가 주제

아라



오 들어볼래

주아



1강 기억나?

**명목 금리 = 실질 금리 + 기대 인플레이션**

이번 2강은 그 **기대 인플레** 축 본격 분석

오후 7:32

아라



오 1강 후속이네



주아

○○ 첫 번째 메시지가 충격임

**1982년부터 2021년까지 40년 저물가 시대 — 끝났다**

아라



헐 끝났다고??



주아

○○ 일시적 사이클 X. 구조적 변화

옛날 미국 CPI 좀 봐

1951년 9.4% / 1970년 6.4% / **1980년 14.6%**

근데 1982년부터 안정 시작

아라



오 1980년 14.6% 진짜 무서웠겠다 ㄷㄷ



주아

○○ 그거 잡힌 게 마법이었어

강사님이 그 마법을 **3 축**으로 풀어주심

**1 세계화**

**2 인구통계학적 황금기**

**3 아마존 효과 (IT 혁명)**

아라



이 셋이 다 무너졌다는 거?

주아



정확. 동시에 무너짐 ㄷㄷ

하나씩 풀어줄게

**첫 축 — 세계화**

미·소 전쟁 시기엔 저개발국에 투자 못 했어

근데 1990년 전후 미국 단일 패권 → 중국·베트남 저임금 활용 가능

아라



오 그래서 옷도 'Made in China'였구나

주아



ㅋㅋ 정확

원자재도 안정 — 소련 붕괴 후 동유럽 자원 / 아프리카·남미 광산 개발

근데 진짜 화룡점정 — **세일 오일**

아라



세일?



주아

2000년대 초반 피크 오일 우려 있었는데

세일 개발로 다 잡힘

근데 강사님이 진짜 충격적인 비교를 보여주심

세일이 화룡점정이었던 이유

100 → 20 배럴

1920년 1배럴 태우면 100배럴 생산 → 지금 1배럴로 20배럴(일부 10배럴) — 물리법칙 한계

아라



와 5분의 1로 줄었네



주아

○○ 캐기 쉬운 원자재가 사라지면 투입 에너지 급증

물리법칙이라 기술 혁신으로 해결 X

그리고 **구리** 가격 — 문명의 핵심 지표

2002년 1.6달러 → 2020년 2.8달러 → **2026년 5.9달러**

오후 7:42

아라



24년 3배 넘었네 ㄷㄷ

주아

○○ 전기차·AI 데이터센터·신재생 다 구리 필요

AI 데이터센터 한 곳에 5만 톤 필요 (일반 데이터센터 3-4배)

아라

엥 5만 톤?

주아

○○ 그래서 강사님이 **원자재 비싸질 4 원인**도 짚으심

1 탈세계화 — 우방에서만 사야 함

2 셰일 오일 한계 (피크 오일 다시)

3 광산 노후화 — **지하 10m → 100m / 1톤당 10g → 1g**

4 자원의 무기화

아라

광산도 깊어지네 ㄷㄷ

주아

○○ 자원 무기화가 진짜 충격임

중국이 뭘 통제하는지 알아?

갈륨·게르마늄·흑연·희토류·은

아라



이름들 어렵 ㅋㅋ



주아

근데 강사님이 진짜 재미있게 풀어주심 — 이게 다 **로봇의 부위**야

**갈륨/게르마늄** = 로봇의 두뇌 (반도체)

**흑연** = 로봇의 체력 (배터리)

**희토류** = 로봇의 근육 (모터)

**은** = 로봇의 신경망 (회로)

아라



와 로봇 다 만들어지네 ㅋㅋ



주아

ㅋㅋ 그래서 로봇으로 인플레 잡겠다는 시나리오 자체가

**중국 통제 자원에 직접 막힘**

아라



헐 ㄷㄷ



주아

### 둘째 축 - 인구통계학적 황금기

지난 40년 인구가 물가를 찍어 누른 3 마법

1 **노동 공급 홍수** - 일할 사람 끝없이 공급 → 임금 잘 안 오름

2 **과잉 저축·저금리** - 30~50대 저축률 ↑ → 저금리

3 **공급 > 수요** - 공급 초과 상태 지속 → 물가 하락

아라



그게 다 끝난 거야?



주아

○○ 1990 vs 2030 인구 피라미드 보면

1990년 안정적 피라미드 → 2030년 **역삼각형**

젊은 인구 급감 → 노동 공급 부족 → 임금 ↑ → 물가 ↑

아라



한국이 진짜 그렇네



주아

그리고 결정적인 게 - **베이비부머 저축→지출 전환**

오후 7:54

아라



베이비부머가 누구야?



주아

1946~1964년생. 우리 부모님·삼촌 세대

지난 40년간 저축 담당 — 평생 모은 분들

근데 이제 대부분 은퇴 → 저축 인출해 생활

→ 저축 감소 → 저금리 시대 작별 → 자본조달 비용 ↑ → 물가 자극

아라



헐 우리 엄마도 작년에 정기예금 깨셨어



주아

아라

헐 우리 엄마도 작년에 정기예금 깨셨어

ㅋㅋ 정확히 그 흐름임

아라



근데 시랑 로봇으로 대체하면 안 돼?



주아

강사님이 그 의문도 풀어주심

로봇은 두 가지를 못 해

**1 환자의 감정을 돌보지 못함**

고령화로 요양보호사 수요 ↑ / 로봇이 쉽게 대체할  
제조업은 8% 수준

**2 세금을 내지 못함**

고령층 ↑ → 세수 부족 → 재정적자 ↑ → 금리 ↑ →  
비용 ↑

오후 7:58

아라



악순환이네 ㄷㄷ



주아

**셋째 축 - 아마존 효과 (IT 혁명)**

지난 40년 IT가 물가 낮춤

최저가 검색 공포 + 중간 상인 실종

5단계 (공장→총판→도매→소매→소비자) → 3단계 (공장  
→물류센터→소비자)

아라



오 쿠팡이 그거구나



주아

ㅋㅋ 정확

근데 IT도 한계 있음 — **물리법칙이 발목**

주문은 빛의 속도지만 / 배송은 트럭+사람

휘발유·전기 비용 = 물리 법칙

AI 발달할수록 오히려 상승 위험

아라



엥 AI가 더 비싸지게 만든다고?



주아

○○ AI가 물가 낮추기 위해 넘어야 할 3 장벽이 있어

**1** 초기 학습 비용 폭발

**2** 인프라 병목 — 칩은 빠르는데 데이터센터·전력망은 느림

**3** 천문학적 에너지 — **AI 데이터센터 들어오면 지역 전기요금 30% 상승**

아라



30%??



주아

○○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인플레이 자극

그럼 언제 시가 물가 낮춰?

여기서 강사님이 198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솔로우 인용하심

EXPERT GUEST

**로버트 솔로우**

"컴퓨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. 생산성 통계를 제외하고는..."

아라



오 멋진 말 ㅋㅋ



주아

ㅋㅋ 1987년 명언인데 지금도 그대로임

1980년대 말 컴퓨터 도래했지만 생산성 폭발은 **2010년대 = 15년 이상**

Wharton 모델: AI 효과는 **2035년 GDP +1.5% / 2055년 +3%**

오후 8:06

아라



와 2035년이면 한참이네



주아

○○ 외부 데이터로 보면 진짜 그래

AI 투자 2019 \$40B → 2025 \$410B → 2026 \$660B 폭증

근데 미국 생산성은 **여전히 1.3~2.2% 평탄** ㄷㄷ

CEO 설문 68%가 AI 생산성 효과 0~5%로 평가

아라



헐 패러독스 그대로네



주아

○○ 솔로우 시차 패턴 그대로 반복

그래서 강사님 결론 ❤️

❤️ 1

**2020년대말까지 AI는 물가 낮추는 역할 무리**

**1980년대 이후 40년 저물가 시대 막을 내림**

**1970년대처럼 연준이 돈 뿌리면 물가 오르고**

**연준이 긴축해야만 물가 잡힘**

오후 8:10

아라



와 1970년대로 돌아간 거네



주아

○○ 그리고 2026년 시점이 더 중요함

**미국 11월 중간선거 + 한국 6월 지방선거**

정치인은 늘 단기 부양 정책 유혹

→ 재정지출 확대 + 연준 돈뿌리기 지속

→ 12~18개월 시차로 물가 상승

**주의: 물가가 오르는 방식은 항상 비선형**

아라



비선형이 무슨 말?



주아

한 번에 폭발적으로 가시화된다는 뜻

2022년 사례 봐

2020-02 팬데믹 위기 → 양적완화 + 제로금리

2021-04 미국 물가 첫 4% 돌파 = **15개월 비선형 상승**

오후 8:14

아라



헐 1년 넘게 잠잠하다 갑자기



주아

○○ 그래서 2024년에도 비슷하게 반복 가능

외부 데이터 — 미국 CPI 2026년 3월 **3.3%** (2024-04 이래 최고)

Fed 정책금리 3.5~3.75% 보유 / 1회 인하 시그널

관세 지연 통과 효과 mid-2026까지 +50bp

아라



그러면 우리 결국 뭘 봐야 해?



주아

강사님이 정리해주심

강의가 짚은 인플레 모니터링 신호

- 01 양적완화 시차 인지**  
— 돈 뿌린 후 12~18개월 후에 물가 상승. 비선형이라 한꺼번에 폭발
- 02 원자재·에너지 가격**  
— 구리 / 세일 / 자원 무기화 흐름 매월 관찰
- 03 AI 인프라 vs 에너지**  
— AI 데이터센터 늘면 단기 인플레 자극. 솔로우 패턴 인지

아라



오 정리됨

결국 라떼 7,000원 될 수도 있다는 거지 ππ



주아

ㅋㅋㅋ 그럴 가능성 큼

강사님 마지막 메시지가

**'물가가 오르는 방식은 항상 비선형 - 깨어 있으면 미리 인지할 수 있다'**

아라



오 1강이랑 같은 결이네 - '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'



주아

정확 ㅋㅋ Part 2 시리즈가 다 그 결

다음 강 - 3강 「달러 가치의 미래」

아라



오 다음 강도 듣고 싶다



주아

다음 강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 ㅋㅋ

박종훈의 지식한방 Part 2-2강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. 투자 권유가 아니라 강의 핵심 논지와 외부 자료 보강을 통해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요약입니다.